제1회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출범식

모두발언

2026. 11. 3.(화) 16:00

한경련 FKI타워 그랜드볼룸(1층)

금 융 감 독 원

원 장 이 찬 진

Ⅰ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?

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.

바쁘신 가운데

“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”의

출발을 **함께** 해주신

근로자 대표와 **금융협회장님들**,

퇴직연금 **사업자 기관장님들**,

그리고 귀한 축사로 힘을 실어주신

박홍배, 김재섭, 최기상 의원님께

감사의 **말씀**을 드립니다.

오늘 이 자리는

국민 누구나

퇴직연금을 **쉽게 이해**하고,

자신에게 **적합**한 **연금 설계**를 통해

장기투자를 **일상**에서 **실천**하여

풍족한 노후생활을 **도모**할 수 있도록

함께 뜻을 **모으고자**

마련되었습니다.

Ⅱ 추진 배경 및 취지

퇴직연금은 **은퇴 후**의 **삶**을
뒷받침하기 위해
소중하게 운용해야 할 자산입니다.

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
장기적인 **관점**에서
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,
과도한 단기매매와 **특정 자산군 쏠림** 등

장기·분산투자와는 **다소 거리**가 있는
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
실제로 **여러 연구**에서도
지나치게 **잦은 매매**는
거래비용을 높이고

오히려 **투자성과**를
낮출 수 있는 것으로
분석되고 있습니다.

한편, 장기투자의 필요성을
공감하더라도

현실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
연금 계좌를 꼼꼼히
살펴보는 일은 **쉽지 않고**,

막상 관심을 가져도
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
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.

저 역시 디폴트옵션을
직접 선택하고, 설정하는 과정에서
40분가량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.

가입자들이 이러한 **어려움**을 **덜고**
장기적 관점으로 **자산배분** 투자를
실천할 수 있도록

퇴직연금에 대한
실질적인 **안내**와 **교육**이
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Ⅲ 캠페인 추진 방향

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쉽게
연금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
배우고, 열어보고, 키우고, 이어가는
네 가지 방향으로
추진합니다.

첫째, 가입자가
연금의 **기초**부터 차근차근
배울 수 있도록,

이번에 발간하는
생애주기별 가이드북을
가입자 안내와 교육에 활용하고,
전국으로 **찾아가는 교육**을 실시하겠습니다.

둘째, 가입자가 일상에서
정기적으로 **연금 계좌**를 **점검**하도록,

연말정산 시기인 **매년 11~12월**을
“연금 채움 주간”으로 운영하고,
운영현황 점검 캠페인을 **실시**하겠습니다.

셋째, 가입자가 **장기적 관점**에서
연금수익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,

매년 5~6월 "**연금 가꿈 주간**"을 통해
소극적 자산운용 방식을 돌아보는
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,
오늘 진행될 **업무협약**을 바탕으로
저희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긴밀히 **협력**하여

가입자를 위한 **실효성** 있는 **교육**이
지속적으로 **확산**될 수 있도록
노력하겠습니다.

Ⅳ 맺음말

노후준비는 거창한 결심보다
작은 실천이 **쌓여 완성**됩니다.

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발걸음은
한 사람에게는 **작은 걸음**이었지만
인류 전체에게는 **큰 도약**이 되었습니다.

내 퇴직연금 계좌를 한 번 열어보는 것,
어디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,
이 작은 한 걸음이 국민의 노후를 바꾸는 **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**이 될 것입니다.

퇴직연금은 **평생**을
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.
그래서 **원칙**이 중요합니다.

시장의 파도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,
그 파도를 어떤 배로 건널지는
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.

오래, 나누어, 꾸준히
이 세가지 원칙이 **노후를 지켜줄 배**입니다.

지금 가입자 한 분 한분의 **작은 관심**이
다가올 미래의 든든한 노후 자산으로
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.

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으로
가입자 모두가 **장기 투자를 스스로 선택**할 수 있도록
우리 모두가 **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.**

감사합니다.